

이 정 표 제 시 를 기 대 하 며 ...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김 봉 환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 교수)

양돈인의 큰 기대와 여망속에서 출범한 「월간양돈」이 창간 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극심했던 양돈불황기에 첫선을 보인 이래 온갖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과 같은 훌륭한 양돈전문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투구한 「월간양돈」 관계자 여러분의 불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경영면이나 사양관리면에서 「월간양돈」이라는 대중매체의 덕분에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양돈업의 급진적인 성장은 소수 기업양돈이나 전업양돈가에 의해 주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돼지 꿈」의 진수도 이들에게 편재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양돈업의 건전한 균형발전은 요원한 감도 없지 않다.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돼지 수급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가격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양돈농가의 자율적인 생산조절과 사양관리 및 돼지 위생개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품종개량, 유통 및 소비구조의 혁신 등 양돈산업의 합리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양돈관계자들의 중지를 집대성하여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전문매체로서 귀지에 거는 기대는 막중하다고 하겠다.

양돈업의 안정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월간양돈」이 전국 방방곡곡의 대소양돈 농가의 길잡이가 되어 모든 양돈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양돈업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있어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양돈은 우리 양돈인 모두가 바라는 지상과제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돼지는 전염성 질병때문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생산자들이 다같이 참여하여 이러한 전염병 퇴치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의 양돈은 질이 좋은 위생적인 돈육을 생산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서운 전염병이 없는 양돈, 위생적인 돈육 생산을 위한 양돈의 길을 「월간양돈」이 선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창간 일곱 돌을 계기로 귀지의 발행 이념과 목적을 다시 한 번 다지고 우리나라의 양돈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차분히 조명하여 우리 양돈인들의 실정에 맞는 생산기술의 보급과 가격안정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월간양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